

# “남도 문학은 풍류·저항정신의 산물”

김대현 교수 등 저자 6명  
‘남도문학기행’ 공동집필  
문학정신 발현된 명소들 한권에  
시대·지역별 대표 문인 정리 눈길

“남도의 전통적인 문학정신은 풍류정신과 저항정신이라 볼 수 있어요. 혹자들은 지역에서 자생하는 ‘대(竹)’에 비유해 설명하기도 합니다. 대나무가 태평세월에는 피리로 쓰이지만 국난의 때에는 죽장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대나무의 정신은 후한 인심은 물론이고 불의를 보면 못 잡는 남도인의 기질과도 연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호남 시단을 일군 사촌 김윤제의 문학 정신이 깃든 환벽당. <심미안 제공>

호남지방문화연구원장인 김대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말이다. 또한 김 교수는 “그러한 남도의 정신은 판소리와 창, 민요, 무가 등으로 대변되는남도 풍류 가락의 전통과 광주학생운동, 여순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집약되는 저항운동이 명징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남도 문학정신이 깃든 현장을 소개한 기행서가 발간됐다.

김대현 교수 등 6명이 저자가 공동집필한 ‘남도문학기행’ (심미안)은 예향, 의향, 문향이라 불리는 남도의 문학정신을 문학 현장과 연계한 책이다.

저자는 김대현 교수 외에도 임형 전 고려교 교사, 이현주 호남지방문화연구원 연구위원, 김선태 목포대 국어국문과 교수(시인), 이대희 시인, 김수형 시인 등이 참여했다. 앞쪽 3명은 고전문학 전공자들이며 뒤쪽 3명은 현대문학 전공자들이다.

이들 저자들은 모두 ‘남도(南道)’라는 말에 하나의 마음을 모았다. 남도는 단순히 전남 지역의 명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대현 교수에 따르면 “전남이라 하지 않고 굳이 남도라고 부르는 것은 이 말이 지닌 문화적 속

성 때문”이라며 “예향, 의향, 문향이라 불리는 남도의 문학정신이 현현된 명소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었다”며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고전문학 쪽에서 대표문인 20명을 선정하고, 현대문학 쪽에서 16명을 선정해 집필이 이뤄졌다.

고전문학 분야에는 임란 의병장 제봉 고경명과 포충사, 호남의 대유학자 고봉 기대승과 월봉서원, 호남시단을 일군 사촌 김윤제와 환벽당, 백운동 원림과 이담로,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옹과 다산초당, 승보사찰 송광사와 불교문학, 풍자시인 김삿갓과 남도의 유적지 등이 포함됐다.

김대현 교수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로 호남시단을 일군 사촌 김윤제의 흔적이 남아 있는 환벽당을 꼽았다.

“김윤제는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광주로 돌아와 환벽당을 짓고 만년을 보냈습니다. 이곳에 은거하면서 후인의 교육에 전념해 정철, 김성원, 김덕홍, 김덕령 등을 가르치고 당시 호남의 명사들과 시단

을 형성했어요.”

현대문학 분야에는 한국근대극의 선구자 김우진과 성취원을 비롯해 남도서정의 김영랑과 영랑생가, 한국 여성소설의 대모 박화성과 목포정년회관, 한국 최고의 지적 작가 이청준과 선학동, 천재 소설가 김승옥과 대대포, 탁월한 평론가이자 번역가 황현산과 비금도, 혁명시인 김남주와 생가 등이 소개돼 있다.

김선태 교수는 영랑생가에서 맑고 섬세한 남도서정을 읽어낸다. 김 교수는 “김영랑은 남도 현대시문학의 진정한 출발점”이라며 “한국전통서정시사에서 김소월과 쌍벽을 이루는 존재로 ‘북에는 소월, 남에는 영랑’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한편 책은 시대별, 지역별로 대표 문인들을 나눠 정리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각 장에 시작되는 부분에 남도 지도를 넣어 해당 문인들이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사랑·추억·문학·음악·일상...

장흥 출신 배홍배 시인, 산문집 ‘내 마음의 하모니카’ 펴내



장흥 출신 배홍배 시인에게 글과 음악, 사진은 세상을 보는 하나의 창과 같다. 그는 글, 음악, 사진을 따로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

“유년기 때부터 나의 눈과 귀엔 청보랏빛 필터가 끼워졌다. 세월이 흐를수록 필터의 색깔은 짙어졌다. 내게 인식되는 대상은 과거로의 일방적인 소통의 힘을 가졌다. 내가 찍는 사진 속에서 대상이 울부짖는 소리와, 내가 듣는 음악이 그리는 가련한 풍경들과 그리고 내가 쓰는 시에서 애정도 없이 무기력한 생명을 얻는 것들은 서로 대립하고 화합하고 때로는 무화되는 시공에서조차도 미래를 향해 각각 쓸쓸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시인은 그렇게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글 쓰는 일과 음악을 듣는 일과 사진을 찍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자문했다. 자문했다는 것은 세 가지 작업에 깊은 의미를 두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배홍배 시인이 산문집 ‘내 마음의 하모니카’ (시산맥)을 펴냈다. 책은 시인 특유의 압축적인 언어와 정밀한 시각, 서정적인 감성으로 채워져 있다.

일반적인 산문집과는 다른 고유의 향기를 발한다.

산문집은 ‘사랑’, ‘추억’, ‘문학’, ‘음악’, ‘일상’이라는 키워드로 구성돼 있다. 살아가는 동안 문득 문득 마주하는 주제이지만 깊이 사유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산문집을 통해 독자들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속고할 수 있다. 저자는 중간 중간 짧은 시를 게재해 시적인 분위기를 선사하기도 한다.

다음의 문장은 세상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글이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저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시기와 질투는 어떤 이들의 힘이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그 힘과 맞설 자신의 힘이 없어져 간다. 과거에 가졌던 감정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안 전함을 느끼는 외로운 삶을 살아가려 한다.”

한편 배홍배 시인은 월간 ‘현대시’로 등단했으며 시집 ‘단단한 새’, ‘아르케토를 위하여’와 산문집 ‘추억으로 가는 간이역’, ‘송가인에서 베토벤까지’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일본군 위안부는 왜 거부되는가

광주여성재단, 오늘 은새암 북카페서 초청 강연...성평등 이슈도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성평등 이슈 등을 논의하는 강연프로그램이 열린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은 초청 특별강연 ‘은새암이 만난 사람들’을 11일(오후 2시) 재단 은새암 북카페에서 연다. 강연자는 코리아협회 한정화 대표.

강연 주제는 ‘일본군 위안부는 왜 거부되는가’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상기시키는 평화의

소녀상과 철거 이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여성인권의 현실과 전망, 만연한 성차별 문제 등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사 부제는 ‘그 소녀가 발꿈치를 들고 있는 이유’인데 평화의 소녀상에 얽힌 다양한 상징을 매개로 고통의 역사를 둘러본다. 소녀상은 불안과 안고 살던 당시 고통을 형상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제작됐

다. 이밖에도 여가에 있는 비둘기는 평화를 wish하는 등 다양한 상징성이 담겨 있는데 이를 톺아본다.

한편 강연자 한정화는 독일에서 베를린 훔볼트 대학 한국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이주여성,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연대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잡지 ‘코리아포럼’ 편집장 등을 역임했다.

2008년에는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모임(AG), 2019년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 ‘용기’ 등을 구축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여성가족재단 성평등문화팀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사랑의 시인’ 김남조 별세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평생 1000여 편 시 남겨

‘사랑의 시인’이라 불렸던 김남조 시인이 별세했다. 향년 96세.

김남조 시인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천착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긍정과 생명성에 토대를 둔 작품을 발표해왔다. 평생 1000여 편의 시를 남겼으며, 특히 사람과 생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견지한 시들을 써온 것으로 평가된다.

10일 문단에 따르면 김남조 시인이 숙환으로 별세했다.

1927년 경북 대구에서 태어나 1951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문과를 졸업한 시인은 숙명여대 교수 등을 지냈다. 고인은 대학 재학시절 ‘연합신문’에 시 ‘성수(星首), 잔상(殘象)’ 등을 발표하며 문단에 등단했으며 1953년 첫 시집 ‘목숨’을 발간했다.

첫 시집 ‘목숨’은 경건함과 인간애가 조화를 이룬 작품집으로 평가받는다. 김 시인이 93세에 펴냈던 19번째 시집 ‘사랑아, 사랑아’는 얼마 남지



않은 만년에 쓴 것으로 생의 황혼과 사랑을 노래한 작품집이다. 고인은 대학 교수와 고교 재직 시절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다. 또 한국시인협회 회장, 방승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문학 업적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 은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